

도연명 시문의 애기(愛奇) 특색 및 지식, 사상 분석

곽원림(양주대학교 문학원)

내용 요약: 도연명(陶淵明)은 평담하고 자연스러운 전원시풍(田園詩風)으로 고금에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그의 시문에서 "애기(愛奇)" 특색 또한 주목할 만하다. 본고는 문헌 연구법과 텍스트 정독법 등을 활용하여, 유묘시(遊墓詩), 《형영신(形影神)》 연작시, 《독산해경(讀山海經)》 13수 및 《자제문(自祭文)》 등의 작품에 나타난 "애기(愛奇)" 내용과 표현 형식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도연명 시문에 묘사된 "애기(愛奇)" 내용을 분류 연구한다. 또한 도연명의 은둔 생활과 결부하여 단계별로 그의 시문에 나타난 전거(典據) 활용 상황을 탐구하고, 그의 지식 구조를 분석하며, 사상 발전 과정을 탐색한다. 나아가 시대 배경, 문화 전통 및 도연명의 개인적 경험과 연관하여 "애기(愛奇)" 특색의 형성 원인을 논의하고, 그 지향점이 세계에 대한 다원적 이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존 세계의 불합리성에 대한 해체(deconstruction) 가능성을 더 많이 제시함을 지적한다.

핵심어: 도연명; 애기; 신화 전설; 유도 사상; 지식 구조; 해체

도연명은 백여 편의 시문을 통해 고금에 명성을 떨쳤으며, 왕국유(王國維)는 심지어 "굴원(屈子) 이후, 문학상의 웅대한 인물은 도연명이 단연 으뜸이다."¹⁾라고 보았다.

그러나 역사상 도연명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시간이 흐르면서 끊임없이 심화되었다.

1) 王国维:《人间词话》,北京: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4 年版,第 127 页.- 1

"그의 시에 대해서는 무사에서 중시로, 냉대에서 추앙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도덕적 절개에 대한 찬탄에서 나아가 그의 존재 경지에 대한 파악으로, 그의 기개와 품행을 양모함에서 나아가 그의 존재 방식을 수용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2) 도연명의 시문에서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은 대개 평담하고 자연스러움이지만, 그의 "애기(愛奇)" 특색에 주목하는 이들은 극히 드물다. 3)

도연명은 스스로 "기이한 문장을 함께 감상하고, 의심스러운 의미를 서로 분석한다."(《이거(移居)》 제1수)⁴⁾라고 서술하였다. 이전에는 "기문(奇文)"에 대한 이해가 종종 "웅장하고 기묘함(雄奇)"이나 "기특함(奇特)"에만 국한되었으나, 사실 기이함(奇異)이나 이상함(奇怪)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⁵⁾ 신선과 귀신 이야기를 주로 기록한 《수신후기(搜神後記)》는 도잠(陶潛)의 이름을 빌려 지어졌다고 여겨지는데,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적어도 역사적으로 도연명이 이러한 신이한 문화를 좋아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⁶⁾ 도연명 시문의 "애기(愛奇)" 특색은 신화 전설, 죽음과 종교 등 내용에 대한 선호와 활용에서 나타난다. 유가(儒家) 경전은 "기(奇)"라는 개념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적으며, 대부분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논어》의 "자 불어 괴력난신(子不語怪力亂神)"(《논어·술이편(述而篇)》)과 "미지생 언지사(未知生 焉知死)"(《논어·선

2) 戴建业:《澄明之境:陶渊明新论》,上海:上海文艺出版社 2019 年版,第 401 页.

3) 范子焯은 이러한 요소들이 위진(魏晉) 시대의 문화 풍조를 반영하며, 당시 유행하던 신선도교(神仙道教) 사상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았다.(范子焯:《五斗米与白莲社:对陶渊明的宗教文化解读》,《古典文学知识》,2021,(01):第 156 页.) 余晓莉는 유가(儒家) 문화가 인생과 사회에 대해 독특하게 사고한 결과라고 보았다.(余晓莉:《陶渊明的儒家人格分析》,《北方文学》, 2012,(06):第 50 页.) 일본의 鈴木虎雄는 일본 전통 귀신 문화의 관점에서 그의 시에 나타난 귀신 묘사와 일본 귀신 문학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鈴木虎雄:《陶渊明诗解》,弘文堂书房,1948 年.)

4) 陶渊明著, 陶澍著, 龚斌点校:《陶渊明全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15 年版,第 40 页.

5) 汤文清 주석: "奇文见《王褒传》" (도연명 저, 도숙 저, 공빈 교감:《도연명 전집》, 상하이: 상하이 고적 출판사 2015년판, 40쪽). 《한서(漢書)·왕포전(王褒傳)》: "그 후 태자(太子)의 몸이 불편하고, 정신이 흐릿하여 자주 잊어버리며, 즐거워하지 않았다. 조서를 내려 왕포(王褒) 등에게 모두 태자궁으로 가서 태자를 모시고 아침저녁으로 기이한 글(奇文)과 자신이 지은 글을 읽게 하였다. 병이 나아지자 돌아왔다." 이 구절에서 "기문(奇文)"은 "웅장한 글(雄文)"이라는 의미 외에 "기이함(奇異)"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할 수도 있다.

6) 顾农 교수는 "진정으로 위작임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당연히 《수신후기》를 도연명의 저작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顾农:《归去来:不一样的陶渊明》,北京:中华书局,2023 年版,第 157 页.-

진편(先進篇)) 등의 논설에서 공자(孔子)는 초자연적인 "괴기(怪奇)"와 "죽음"에 대한 언급을 되도록 피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물들은 "인(仁)"과 "예(禮)"의 일상적 실천에서 벗어나며, 이러한 태도는 유가(儒家)가 "기(奇)"에 대해 경계하고, 지나치게 기이함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 질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을 우려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도연명은 달랐다. 그는 단순히 기이함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특이한 요소들을 통해 심오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였다. 예술적 특성 분석 측면에서, 도연명은 상상력과 환상적인 심상(意象)을 잘 활용하여 예술 세계를 구축하였으며, "애기(愛奇)" 요소는 시가(詩歌)의 표현력을 증강시켰다. 동시에 세계에 대한 다원적 이해로 인해 고정된 관념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었다. 고대 문학 연구가 끊임없이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특색을 재검토하는 것은 도연명의 시문 창작과 사상 세계를 더욱 전면적이고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도연명 시문 "애기(愛奇)" 특색의 구체적 내용

도연명 시문의 "애기(愛奇)"는 유가적 관념과 상반되는 행동과 관념, 특이한 사물에 대한 선호, 괴이한 행동에서 드러난다. 도연명에게 "기(奇)"는 일종의 관념으로, 사회의 고정된 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사물에 대한 애호와 탐색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연명의 시문을 종합해 볼 때, 그 안에 담긴 "애기(愛奇)" 내용을 신이한 사물에 대한 선호, 유가에서 벗어난 생사관, 불교 및 도교 관념의 유랑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아래에서 차례로 논술한다.

도연명 시문의 "애기(愛奇)"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신이한 사물에 대한 선호이다. 도연명은 스스로 "약령기사외, 위회재금서(弱齡奇事外, 委懷在琴書)."(《시작진군참군경곡아작(始作鎮軍參軍經曲阿作)》)⁷⁾라고 서술하였다. 그는 초기에 신비한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으며, 이는 그의 초기 작품 《한정부(閑情賦)》에서 《초사(楚辭)》의 전고(典故)를 많이 사용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정부(閑情賦)》

《초사(楚辭)》

7) 陶淵明著, 陶澍著, 龚斌点校:《陶淵明全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15 年版,第 57 页.((음주))- 3

슬프다, 아침 햇살이 쉽게 저물고, 인생의 긴 수고로움에 감탄하네. 오직 천지는
무궁하나, 인생의 긴 수고로움에 슬퍼하네.((원유(遠遊)))

발걸음을 옮기며 서성이다 흥취를 잊고, 얼굴빛은 침울하여 근엄한 표정을 짓네.
은미하여 깨닫지 못하고, 홀로 서성이며 방황하네.((애시명(哀時命)))

부인이 여기 있음을 생각하고, 떠도는 구름에 마음을 실어 보내네. 원컨대 떠다니는
구름에 말을 전하나, 풍릉(豐隆)을 만나도 나아가지 못하네.((구장(章)))

부질없이 생각에 잠겨 스스로 슬퍼하니, 결국 산으로 막히고 강으로 둘러싸이네.
근심과 수고를 누구에게 고하리오.((칠간(七諫)))

봉황이 말을 전해주기를 기다리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할까 두렵네. 봉황이
이미 전함(詒)을 받았으니, 고신(高辛)이 나보다 먼저 할까 두렵네.((이소(騷)))

목란(木蘭)에 남은 이슬에 머무네. 아침에 목란에 떨어진 이슬을 마시네.((이소(離
騷)))

그 시절의 늦어짐을 슬퍼하네. 미인(美人)이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네.((이소(離
騷)))

《한정부(閑情賦)》속 《초사(楚辭)》 전고(典故) 표도연명은 젊은 시절 건공입업(建功立業)하려는 유가 사상을 지니고 있었다. "소년 시절에는 사람의 일이 드물었고, 육경(六經)을 유람하고 좋아했다."⁸⁾ 그러나 《한정부(閑情賦)》에서 《초사(楚辭)》를 인용한 부분은 총 7곳인데, 《초사》는 "향초미인(香草美人)"이라는 기탁(寄託) 수법을 가질 뿐만 아니라, 유가 경전과는 다른 문화적 내용을 보여주며, 특히 《이소(離騷)》에는 신화 전설이 많다. 이를 통해 초기 도연명이 이미 신이함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저작에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한정부》에 나오는 "감(感)", "욕(欲)", "공(慙)", "구(懼)", "개(慨)", "애(哀)" 등과 십원십비(十願十悲) 모두 《초사》의 낭만주의적 영향이 컸다.

도연명 시문에 나타난 신이한 사물에 대한 선호는 《산해경(山海經)》의 독서와 서술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주왕전(周王傳)을 두루 읽고, 《산해경도(山海圖)》를 유람한다."⁹⁾라고 말하여 신화에 대한 그의 열애를 엿볼 수 있다

8) 陶淵明著, 陶澍著, 龚斌点校:《陶淵明全集》,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15 年版, 第 81 页.

연명 시문에 나타난 신이 사물과 사상 총괄표도연명의 시문에서 신이한 사물은 단순한 문학적 장식이 아니라 그의 정신 세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상징이다. 예를 들어, 단목(丹木)은 《산해경·서산경(西山經)》에서 "밀산(崑山)…… 단목은 오년에 오색이 맑아지고, 오미가 향기로워진다."¹⁰⁾라고 기록되어 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열매를 먹으면 장수할 수 있다고 한다. "밀산양(崑山陽)"은 밀산(혹은 밀산)의 남쪽으로, 신화 속의 선산이며, 속세를 벗어난 선경을 상징한다.

도연명은 의문형 문장으로 시를 시작하여, 신선 세계의 신비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현실 너머의 이상 세계를 추구하는 마음을 암시한다. "백옥응소액(白玉凝素液), 근유발기광(瑾瑜發奇光)."의 "백옥소액(白玉素液)"은 바로 《산해경·서산경》에 기록된 밀산에서 풍부하게 생산되는 옥고(玉膏)로, "비비탕탕(沸沸湯湯), 황제시식시향(黃帝是食是饗)"이라 하여 천지 정화가 응결된 것이다. 시 전체에서 작가는 《산해경》에 나오는 단목(丹木), 백옥(白玉) 등 진귀한 보물로 현실을 초월한仙境(仙境)을 구축하며, 동시에 도연명(陶淵明)이 현세의 부화(浮華)함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감각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도연명은 이와 유사한 묘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소요무고상(逍遙蕪皋上), 요연망부목(杳然望扶木)"에서 "무고(蕪皋)"는 신화 속 지명으로 "무(蕪)"와 "무(無)"가 통하여 허황되고 실재하지 않는 영역을 나타낸다. "고(皋)"는 물가의 높은 지대를 의미하는데, 합쳐서 속세를 초월한 선경을 뜻한다. "부목(扶木)"은 평소에 사람들이 말하는 부상(扶桑)으로, 신화 속에서 태양이 쉬어가는 큰 나무이며 천지가 교합하고 광명의 근원을 보여준다. 시인은 "소요(逍遙)"를 통해 감정의 기초를 정립하고, 속세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의 자유로운 정신적 모습을 나타낸다. "요연망(杳然望)" 속에는 이상적인 경지를 향한 탐색이 암묵적으로 담겨 있으며, 이는 도연명의 "마음이 멀어지니 땅이 저절로 한적해진다(心遠地自偏)"는 은일(隱逸) 관념과 상응한다. "영인시단지(靈人侍丹池), 조조위일욕(朝朝為日浴)"에서 "영인(靈人)"은 신화 속에서 태양을 주관하는 신령을 의미하며, "단지(丹池)"는 "함지(鹹池)"라고도 불리는데, 태양이 목욕하는 신비로운 연못으로 천지 정화의 결합을 나타낸다. 도연명은 이곳에서 신화적

9) 陶淵明著, 陶澍著, 龔斌點校:《陶淵明全集》,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15 年版, 第 117 頁.- 4

다.

10) 袁珂校注:《山海經校注》, 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80 年版, 第 41 頁.- 5

의식감을 지닌 장면을 통해 자연 법칙의 영원성을 은유하고, 시인이 천도(天道)의 순환과 만물의 질서를 깨닫는 과정을 암시한다.

동시에 도연명은 많은 신화 속 기이한 짐승의 형상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펼럭이는 세 마리 푸른 새, 깃털 색이 기묘하고 가련하다(翩翩三青鳥, 毛色奇可憐)."¹¹⁾ "삼청조(三青鳥)"는 서왕모(西王母)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고 소식을 전하는 사자로, 선경과 초월을 상징한다. 여기에서 작가는 신성한 새의 아름다움으로 선경에 대한 동경을 암시하고, 인간 속세의 평범함을 반증한다. "신령한 봉황이 구름 위에서 춤추고, 신성한 난새가 옥 같은 소리를 조율한다(靈鳳撫雲舞, 神鸞調玉音)." 봉황(鳳鸞)은 유가 경전에서 태평성대를 상징하지만, 여기에서는 난세의 무도함을 반증한다. "정위가 작은 나무를 물고, 장차 창해를 메우려 한다(精衛銜微木, 將以填滄海)." 신화에서 염제(炎帝)의 딸이 물에 빠져 죽어 새로 변해 나무와 돌을 물어 바다를 메운다. 시에서는 미약한 존재가 광대한 것에 대항하는 것을 비유하여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행하는(知其不可而為之)" 비극적 영웅주의를 부각한다. "야유는 강하게 변할 수 있으나, 조강은 결국 홀로 죽는다(窺窳強能變, 祖江遂獨死)."¹²⁾ "야유(窺窳)"는 괴수의 이름으로 잔혹한 세력을 상징하며, "조강(祖江)"은 신의 이름으로 총량한 선비를 가리킨다. 작가는 여기에서 두 개의 극명하게 대비되는 인물을 사용하여 정치 투쟁 속에서 정직한 자가 희생되는 비극을 폭로한다. "치주가 성읍에 나타나면, 그 나라에는 버림받은 선비가 있다(鴟鵂見城邑, 其國有放士)."¹³⁾ "치주(鴟鵂)"는 일종의 신수로, 전설에 따르면 제요(帝堯)의 아들 단주(丹朱)가 변한 새이다. 《산해경·남산경》에는 치주가 "나타나면 그 현에 버림받은 선비가 많다(見則其縣多放士)"¹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정치의 혼미함을 비유한다.

도연명 시문의 "애기(愛奇)"는 유가(儒家)의 생사관에서 벗어나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그의 시에는 묘지 유람에 대한 묘사가 적지 않다. 《귀원전거(歸園田居)》 제4수에서 "언덕과 무덤 사이를 배회하니, 옛사람의 거처가 아련하네(徘徊丘壟間, 依依昔人

11) 陶淵明著, 陶澍著, 龔斌點校:《陶淵明全集》,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15 年版, 第 120 頁.

12) 陶淵明著, 陶澍著, 龔斌點校:《陶淵明全集》,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15 年版, 第 124 頁.

13) 陶淵明著, 陶澍著, 龔斌點校:《陶淵明全集》,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15 年版, 第 124 頁.

14) 袁珂校注:《山海經校注》, 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80 年版, 第 9 頁.- 6

居)"¹⁵⁾는 폐허와 무덤을 지나며 시간의 흐름을 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인공유주가묘백하(諸人共遊周家墓柏下)》에서는 묘지에서 유람할 뿐만 아니라, 묘지에서 노래하고 술을 마시며 심지어 "저 측백나무 아래 사람을 생각하니,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感彼柏下人, 安得不為歡)"¹⁶⁾라고까지 연상하여 생사에 대한 달관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만가시(挽歌詩)》 세 수는 스스로를 애도하는 어조로 죽은 후의 장면을 허구적으로 구성하는데, "황량한 풀은 어찌 그리 넓고 넓으며, 백양나무도 쓸쓸하네(荒草何茫茫, 白楊亦蕭蕭)"¹⁷⁾는 묘지의 이미지를 묘사하지만, 그 주지는 애도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산등성이에 의탁한다(托體同山阿)"는 자연으로의 회귀이다. 이러한 시구들은 자연 순환의 냉정하게 관찰하는 것으로, 신비주의나 제사 의식이 아니다. 이러한 사상은 위진(魏晉) 시대 문인들이 난세를 맞이하여 운명을 반추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괴이한 행위는 위진(魏晉) 시대의 풍모를 띠고 있다. 《만가시(挽歌詩)》는 처음으로 "자만(自挽)" 형식을 채택하여, 만가(挽歌)가 본래 타인을 애도하는 작품으로 고착화된 양식을 변화시켰다. 망자의 시각으로 세상의 산 사람들을 되돌아보며 "죽음의 필연성—사후 장면—세상 인심의 냉담함"이라는 점진적인 틀 구조를 이룬다. 《자제문(自祭文)》은 전통적인 묘지명(墓誌銘)의 서술 관례를 깨고, 죽음 서사를 생명 철학의 최종 설명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독자적인 서술 방식은 중국 문학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생명 자성 의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생사 철학 체계를 구축한다.

《만가시(挽歌詩)》¹⁸⁾의 첫 구절 "유생필유사(有生必有死), 조종비명촉(早終非命促)"은 도가(道家)의 자연주의를 차용하여 죽음의 신비성을 해소하고, 《장자(莊子)·대종사(大宗師)》에서 "사생(死生)은 명(命)이다"라고 말한 것과 상통한다. "조종(早終)" 두 글자는 수명의 길고 짧음에 대한 가치 차이를 부정한다. "작모동위인(昨暮同為人), 금단재귀록(今旦在鬼錄)"에서 "작모—금단" 두 시점이 빠르게 전환되어 생사의 경계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 사이에 거의 거리가 없음을 부각한다. 이러한 시간 압축의 서술 기법은

15) 陶淵明著, 陶澍著, 龚斌点校:《陶淵明全集》,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15 年版, 第 28 页.

16) 陶淵明著, 陶澍著, 龚斌点校:《陶淵明全集》,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15 年版, 第 35 页.

17) 陶淵明著, 陶澍著, 龚斌点校:《陶淵明全集》,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15 年版, 第 126 页.

18) 陶淵明著, 陶澍著, 龚斌点校:《陶淵明全集》,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15 年판, 제 125 페이지.- 7

불교의 "찰나생멸(刹那生滅)"이라는 무상관(無常觀)과 유사하지만, 후자의 윤회 환생이라는 구원의 환상 사상을 배격한다. "혼기산하지(魂氣散何之)? 고행기공목(枯形寄空木)" 혼백이 흩어지고 육신이 관에 안치되는 이러한 직설적인 죽음의 모습 묘사는 고대인들의 사후 영혼 불멸이라는 전통적인 믿음을 전복시킨다. "단한재세시(但恨在世時), 음주부득족(飲酒不得足)"은 표면적으로는 희극적이며, 살아 있을 때 술을 충분히 마시지 못한 것을 농담조로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즐거운 삶에 대한 미련으로, 위진(魏晉) 시대 풍골의 상징인 술은 시인의 현세 삶의 온기를 담고 있다. 둘째는 시인이 미처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으로, "부득족(不得足)"을 빌려 생명 본질의 결함을 암시한다. 셋째는 만가(挽歌)의 정형화에 대한 반어적 표현으로, 세속적인 욕망으로 죽음의 엄숙함을 상쇄한다.

《자제문(自祭文)》¹⁹⁾에서 "도자(陶子)는 이 역려(逆旅)의 객관을 떠나 영원히 본가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역려(逆旅)"의 본래 의미는 객잔이고, "본택(本宅)"은 자신의 집을 뜻하지만, 문맥에서는 전자가 인간 세상을 비유하고 후자는 죽음을 대신한다. 여기서 《열자(列子)》의 "사인을 귀인이라 한다(死人為歸人)"는 설을 차용하여 죽음을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전통 제문(祭文)의 죽음에 대한 두려운 서사를 전복시키고 도가(道家)의 "때에 편안히 순리에 따르는(安時而處順)" 생사관을 드러낸다. 유상(遺像) 앞에서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은 "기다리던 얼굴은 이미 어둡고, 소리는 더욱 희미하네. 아! 슬프도다!" "안명(顏冥)" "음막(音漠)"은 죽음의 실제 모습을 냉정하고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어두한 사립문, 밤낮으로 나를 섬기네." "예예(翳翳)"는 어둡하다는 뜻으로, 어두한 사립문은 물질생활의 빈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동시에, 속세의 번잡함을 단절하는 정신적 요새이다. 이후 도연명은 현묘한 오도(悟道)의 경지로 들어가 "운명을 알고 천명을 아나니, 누가 그리워하지 않을꼬냐. 나는 이제 죽으니 한이 없을 것이다." "식운(識運)"은 "지천명(知天命)"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숙명론의 소극적인 면을 배격하고 생명 과정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강조한다. 이제 이렇게 죽으니 작자는 더 이상 한이 없다는 것이다. "들에 장사 지내 그 혼을 편안히 하니, 아득히 나아가고 묘문은

19) 陶淵明著, 陶澍著, 龔斌點校:《陶淵明全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15 년판, 제 164 페이지.- 8

쓸쓸하네. 사치스러운 송신을 부끄러워하고 검소함을 비웃는 왕손, 텅 비어 사라지고 아득히 멀어졌으니, 봉분도 없고 나무도 없어도 세월은 흐르네. 이전의 명예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누가 이후의 노래를 중하게 여기겠는가? 인생은 참으로 어렵고, 死如之何." 그는 후장(厚葬)을 반대하고 춘추 송(宋)나라의 환퇴(桓魋)처럼 석곽(石槨)을 사치스럽게 만들기를 원치 않았으며, 양왕손(楊王孫)처럼 나장(裸葬)으로 검소하게 장례를 치르지도 않았다. 그러한 행위들이 모두 극단적이고 꾸밈이 많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연스러움이 낫다고 보았다. "匪貴前譽, 孰重後歌." 도연명은 살아서 얻는 명예와 죽은 후에 얻는 명성을 부정했는데, 이는 유가(儒家)의 "입언불후(立言不朽)"(말을 남겨 불후의 업적을 세움)에 어긋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함환행가(含歡行歌)"(기쁨을 머금고 노래 부르며 살아감)라는 일상적 실천을 통해 도덕적 경지를 생활화하고 심미화하였다.

도연명 시문의 "애기(愛奇)" 특색은 불교와 도교 관념에서 유명하는 모습에서도 나타난다. 동진(東晉) 말기 사상 충돌의 흐름 속에서 불교의 윤회설과 도교의 신선론은 밀물처럼 당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강타했다. 도연명은 종교적 광기에 빠지지도 않았고, 철저한 이성적 해체에 함몰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시문 속에서 독특한 종교 인지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의 《형영신(形影神)》, 《독산해경(讀山海經)》, 《음주(飲酒)》 등의 시는 불교와 도교 사상에 대한 비판적 대화이자, 생명 본질에 대한 시적 탐색이었으며, 결국 "종량대화중, 불희역불구"(《형영신》)(커다란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기뻐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는 자연철학을 형성하였다. 이처럼 종교 의식을 생명의 지혜로 전환하는 사상적 경로는 도연명을 중국 문학사상 가장 현대적인 고전 시인으로 만들었다.

도연명의 《형영신(形影神)》 연작시²⁰⁾는 종교적 색채가 가장 짙은 작품이다. 《형증영(形贈影)》의 처음 두 단락 "천지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산천은 변함없는 때가 있네. 초목은 몇몇한 이치를 얻어, 서리와 이슬에 따라 영화롭고 시들지."에서는 천지 산천의 영원함과 초목의 흥망을 대비하여 인간 생명의 나약함을 암시한다. "적견재세중, 엄거미귀기. 해각무일인, 친식기상사?"(잠시 세상에 있다가, 갑자기 떠나 돌아올

20) 陶淵明著, 陶澍著, 龚斌点校:《陶淵明全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15 年版,第 21-23 页.- 9

기약이 없네. 어느 누가 아무도 없음을 깨닫고, 친척과 지인이 어찌 서로 그리워할 까?) 망자가 갑자기 사라지는 상황에서 시인은 죽음의 장면을 구체화하며, 살아남은 자들이 유물을 보며 눈물 흘리는 모습만을 남겨, "인사유명(人死留名)"(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이라는 허망함을 깨닫게 한다. 마지막 "무등화술"(변화하는 술법을 탈 수 없음)에서는 육체가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함을 인정하며, "득주막구사"(술이 생기면 구차하게 사양하지 말라)에서는 때를 놓치지 않고 즐길 것을 주장하며, 시인은 향락주의의 선언을 한다. 《영답형(影答形)》으로 넘어가서는 "존생불가언, 위생매고졸. 성원유곤화, 막연자도절."("삶을 보존하는 것은 말할 수 없고, 건강을 돌보는 일은 늘 서투르다. 진정으로 곤륜산과 화산을 유람하고 싶지만, 이 길은 아득히 끊겼네.") 여기서 "존생"은 도교의 양생술을 가리키고, "막연"은 그 허위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도연명은 도교의 장생을 부정한다. "여자상우래, 미상이비열. 계음약잠괴, 지일종 불별."(그대와 만난 이래로, 슬픔과 기쁨이 다르지 않았네. 그늘에서 잠시 떨어져 있어도, 해가 멈추면 결국 헤어지지 못하네.) 여기서는 형체와 그림자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빛과 그림자가 떨어지지 않듯 육체와 명예의 공생 관계를 비유하며 형체와 그림자가 떨어지지 않음을 말한다. "입선유유애, 호위불자갈?"(선을 행하면 사랑이 남는데, 어찌 자신을 다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명예의 불멸을 죽음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삼았는데, 이는 동진 사대부들이 문벌의 명망에 집착했던 것을 반영한다. 마지막에 이르러 "주운능소우, 방차거불열!"(술이 능히 근심을 없앤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어찌 나쁘지 않으랴!) 술에 취해 근심을 잊는 것을 알보며 질책하는데, 여기서는 향락주의를 비판하고 《형증영》의 관점을 반박한다. 연작시의 마지막은 《신석(神釋)》이다. "대균무사력, 만리자삼저. 인위삼재중, 기불이아고!"("커다란 조물주는 사사로운 힘이 없고, 만물은 스스로 무성하게 존재한다. 사람은 삼재(三才) 중에 있으니, 어찌 나로 말미암지 않으랴!") "대균"은 자연의 조화를 가리키며, 시인은 인격신이 주재한다는 이론을 부정하고 만물이 스스로 변화한다는 자연철학을 확립한다.

"삼황대성인, 금복재하처? 팽조애영년, 육류불득주."(삼황의 위대한 성인들도 지금 다시 어디에 있는가? 팽조는 영원한 삶을 사랑했으나,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 없었네.) - 10 삼황과 팽조는 모두 도교의 장수 대표 인물인데, 모두 사라졌다. 이는 시인이 유교와 도교 양가의 불멸 미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일취혹능망, 장비촉령구? 입선

상소흔, 수당위여예?"(날마다 취하면 혹 잊을 수 있지만, 어찌 수명을 단축시키는 도구가 아니겠는가? 선을 행하는 것은 늘 기쁜 일인데, 누가 너를 위해 칭찬할 것인가?) 이 두 단락은 두 겹의 부정을 포함한다. 첫 번째는 "축령구"로, 지나친 음주는 몸을 상하게 하므로 "형(形)"의 향락주의를 부정한다. 두 번째는 "수당위여예"로, 명예의 허망함을 지적하여 "영(影)"의 도덕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시 전체의 결말 "종랑대화중, 불희역불구. 응진변수진, 무복독다려."(커다란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기뻐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마땅히 다해야 할 바는 다해야 하니, 다시 홀로 너무 많이 근심하지 말라.)는 주된 뜻을 드러내는데, 이는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고 "무희무구"(기쁨도 두려움도 없는)의 초연한 경지에 도달할 것을 주장한다.

《도화원기(桃花源記)》²¹⁾는 도가(道家)의 동천(洞天) 세계를 묘사한다. "산에는 작은 입구가 있는데, 희미하게 빛이 나는 듯하다. …… 다시 수십 보를 가니, 갑자기 탁 트이면서 밝아졌다." 이 도화원(桃花源)은 도가에서 굳게 신봉하는 복지(福地)와는 다르다. 이곳은 "잠깐 진상이 드러났다가 곧바로 닫히는 신기한 곳이지만, 전혀 괴이하지는 않다. 이곳은 현행 체제 밖에 있을 뿐, 인간 세상의 피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 어떠한 초자연적인 기적도 없다."²²⁾ 심지어 "곳곳에 표지를 해 두었지만", 결국 "길을 잃어 다시는 찾지 못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길을 묻는 사람이 없게" 된다. 여기서의 하나의 세계를 가상으로 설정했지만, 아득하고 모호하여 도교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결코 도교를 선양하는 작품은 아니며, 심지어 도교의 수련 길에 대한 명백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 도연명 시문의 전거 활용과 도가 지식 구조

시문에 전거를 활용하는 것은 중국 문학의 특색이다. 시문의 전고를 고찰하는 것은 작가의 지식 비축량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관념도 엿볼 수 있다. 도연명의 유가(儒家) 이외의 지식 구조를 고찰하기 위해, 우리는 시기별 도연명 시문의 전거 - 11 활용 상황을 분석하여, 그가 받은 도가(道家) 문화의 영향으로 형성된 "애기(愛

21) 陶淵明著, 陶澍著, 龚斌点校:《陶淵明全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15 年版,第 18 页.

22) 陶淵明著, 陶澍著, 龚斌点校:《陶淵明全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15 年版,第 13 页.

奇)" 특색의 지식적 연원을 탐구한다. 그의 초기 작품인 《한정부(閑情賦)》는 《시경(詩經)》의 전고를 많이 사용하였고, 그중 《초사(楚辭)》의 어구 전고도 적지 않다(상술함). 도연명은 출사하여 주궈주(州祭酒)가 된 때부터 마지막으로 팽택령(彭澤令) 직을 사임할 때까지 총 다섯 차례 관직에 나아갔다. 그가 관직에 있었거나 은둔했던 시기에 창작된 시문 중 연대가 확실한 것은 총 32수(편)인데, 그중 유가적 전고를 사용한 것은 총 15수(편)이고, 도가적 전고를 사용한 것은 총 12수(편)로, 이는 그의 출사 및 은둔 시기 작품의 37.5%를 차지하며, 평균 세네 수(편)마다 인용이 나타난다. 사은(仕隱) 교체 시기, 도연명의 시문은 도가(道家) 전고를 인용한 편목 중 《노자(老子)》 4곳, 《장자(莊子)》 13곳이다. 및 《열자(列子)》 2곳이다. 《명자(命子)》 중 "역인(厲人)이 밤에 아이를 낳고 급히 불을 구하다"²¹⁾²⁴⁾는 《장자·천지(莊子·天地)》의 "추악한 사람이 밤중에 아이를 낳고 급히 불을 취하여 살펴보는데, 조급하게 오직 자신과 닮을까 두려워한다"에서 인용되었다.

도연명(陶淵明)이 역인의 고사(典故)를 시에 직접 사용한 것은 도연명이 역인처럼 자신의 아들이 자신처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아들이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표현한 것이다. 《권농(勸農)》의 "박(樸)을 품고 진실(真)을 머금다"에서 "박을 품다"는 표현은 《노자(老子)》 19장 "소박함을 보고 박(樸)을 품으며, 사사로운 욕심을 줄이라"에서 유래한다. 노자가 숭상했던 "소박함을 보고 박(樸)을 품다"는 본래 나라를 다스리는 조치였으나, 도연명은 이를 농경에 사용하여 소박하고 자족적인 삶에 대한 찬미를 표현하였다. "진실(真)"이라는 글자는 《장자·어부(莊子·漁夫)》에서 유래하는데, "진실한 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며, 자연스러워서 바꿀 수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늘을 본받아 진실을 귀하게 여기고 세속에 얽매이지 않는다"²³⁾고 보았다. 이는 도가(道家)가 "진실"을 정의한 것으로, 도연명이 이를 인용하여 상고(上古) 백성들의 순수하고 진실한 품성에 대한 찬미를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도가가 숭상하는 "진실"에 대한 동의를 나타낸 것이다. 《권농》 중의 "지혜와 기교가 싹트자, 의지하고 기다릴 것이 사라지다"는 《노자》 18장 "대도(大道)가 폐하자 인의(仁義)가 나타나고, 지혜가 나오자 큰 거짓이 생겼다"²⁴⁾를 차용한 것이다.

23) 杨柳桥:《庄子译注》,上海古籍出版社 2012 年版,第 326 页.- 12

도연명은 시에서 사람들이 지혜를 얻은 후에 악한 마음이 생겨 물자 부족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다.

이 시기 도연명은 벼슬길에 대한 포부, 선철(先哲)에 대한 존경을 드러냈는데, 이는 그의 유가(儒家) 사상의 발현이다. 또한 몸소 농사를 짓는 생활에 대한 동경, 은둔하는 선비에 대한 추앙은 그에게서 도가(道家)의 풍모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도연명이 완전히 은둔한 후에 지은 시문 중 연대가 확실한 것은 총 81수(편)이며, 그중 유가(儒家)의 전거(典據)를 사용한 것은 27수(편), 도가(道家)의 전거를 사용한 것은 29수(편)로, 그의 은둔 시기 작품의 35.9%를 차지하며, 평균 두세 수(편)마다 한 번씩 인용되었다.

법가(法家)의 전거를 사용한 것은 2수(편)이고, 불교(佛敎)의 전거를 사용한 것은 1수(편)이다.

완전한 은거 시기 도연명 시에 인용된 도가(道家) 관련 편목은 《노자(老子)》 5곳, 《장자(莊子)》 26곳, 《열자(列子)》 11곳에 달한다. 《음주(飲酒) 20수》(제3수)의 "도(道)가 사라진 지 천 년을 향해 가니, 사람들마다 그 본성(情)을 아끼네"²⁵⁾는 《장자(莊子)·선성(繕性)》의 전고를 직접 인용하여, 도(道)가 사라진 지 천 년이 되어 사람들마다 자연적인 본성을 잃어버린 현실을 폭로하였으며, 구절마다 시인이 혼탁한 현실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순(舜) 임금이 떠난 지 오래되어, 가난한 선비들이 대대로 이어지는구나"(《영빈사(詠貧士) 7수》 제3수)²⁶⁾라는 현 상황에 직면하여, 도연명은 "요순(堯舜) 시대에는 천하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장자(莊子)·추수(秋水)》)는 구절을 떠올렸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자신은 가난한 선비들이 계속되는 난세 속에서 요순 시대의 변성함을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도연명 시에서는 《장자(莊子)》의 "진(真)"을 4곳에서 인용하는데, "진(真)"은 단지 실제(眞實)의 의미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의 진실함에 대한 더 깊은 차원의 해석을 담고 있다. 시인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을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발전시키기를 요구한다. 영계기(榮啟期)의 전고는 《열자(列子)·천수(天瑞)》에서 유래하는데, 아흔 살 고령의 영계기가 생활이 궁핍하여 밧줄을 허리띠 삼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즐겁고 근심 없이 지냈다는 이야기이다.

24) 袁劲松:《道德经今解——道家思维活学活用》,中央编译出版社,2007 年,第 66 页.

25) 陶渊明著, 陶澍著, 龚斌点校:《陶渊明全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15 年版,第 73 页.

26) 陶渊明著, 陶澍著, 龚斌点校:《陶渊明全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15 年版,第 109 页.- 13

공자가 영계기를 만나 그가 안락함을 유지하는 이유를 묻자, 영계기는 가난을 독서인의 상식으로 여길 뿐이며, 생로병사는 누구나 겪는 필연적인 일일 뿐이므로 근심할 이유가 더 없다고 답했다. 도연명이 지은 《음주(飲酒) 20수》 제2수의 "아흔에 띠를 매니, 굶주림과 추위가 그 해를 더하는구나", 제3수의 "내 몸을 귀히 여기는 까닭이 어찌 한평생에 있지 않겠는가"²⁷⁾와 《영빈사(詠貧士) 7수》 제3수의 "영웅(榮叟)은 늙어 띠를 땀네"²⁸⁾는 모두 이 전고를 활용하였다. 이처럼 빈번한 사용은 도연명이 영계기의 정신을 찬양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시인이 그 속에 담긴 안빈낙도(安貧樂道) 사상에 대한 공감 또한 느낄 수 있다.

이 시기 도가(道家)의 전고 사용이 유가(儒家)보다 많다는 것은, 도가 사상이 완전히 은거한 도연명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도가 전고의 형식적인 인용을 통해 볼 때, 완전한 은거 시기의 도연명은 이미 그 난세의 진면목을 꿰뚫어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시인이 추구하는 "자연(自然)"과 "진(真)"은 실제로는 자기 본성의 해방을 의미하며,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심신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바람이다.

위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도연명의 지식 구조는 항상 유가 경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유가(儒家)는 사회적 책임감을 부여했고, 도가(道家)는 정신적 해탈을 제공했으며, 궁극적으로는 도가 자연주의로 모순을 조화시켜 독특한 "은일(隱逸) 인격"을 형성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도가 문화가 도연명에게 현실 비판의 철학적 기반, 자연으로의 회귀라는 가치 지향, 그리고 생사 초월의 정신적 경지를 제공했음에 중점을 두었다. 사실 도가 문화는 신비로운 지식과 색다른 표현 양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도연명이 세상을 바라보는 다원적인 시각을 열어주었으며, 도연명 시문의 "애기(愛奇)" 특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는 세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고, 동시에 다양한 고정관념들을 해체하였다.

3. 도연명 시문 "애기(愛奇)" 형성의 원인

위진(魏晉) 시대에 불교는 중국 중원에서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당시 사람들의 사상

27) 陶淵明著, 陶澍著, 龚斌点校:《陶淵明全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15 年版,第 72、73 页.

28) 陶淵明著, 陶澍著, 龚斌点校:《陶淵明全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15 年版,第 109 页.- 14

관념과 정신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도연명은 동진(東晉)의 고승 혜원(慧遠)과 같은 여산(廬山) 지역에 거주하였는데, 전자는 산 아래에 은거하였고 후자는 동림사(東林寺)에 주석(駐錫)하였다. 《연사고현전(蓮社高賢傳)》²⁹⁾의 기록에 따르면, 도연명은 종종 문하생과 조카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 유람하고 구경하였으며, 혜원과 시문을 주고받았고 심지어 백련사(白蓮社) 집회에 초청받기도 했다. 이 책이 불교도들의 선전을 위해 쓰여졌으므로 그 내용은 의심할 여지가 있지만, 도연명이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문제없을 것이다. 불교의 윤회 관념, 인과응보 사상은 난세에 처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제공하였다. 도연명은 비록 불교에 명확히 귀의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시에 나타난 "인생은 환화와 같으니, 결국 공무로 돌아가리라"³⁰⁾ 등의 구절은 불교의 공관(空觀) 사상 흔적을 분명히 보여주며, 불교 사상은 그의 세계관과 인생관에 새로운 사유를 가져다주었다.

도교는 위진 시대에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루었으며, 신선 사상, 장생 관념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렸다. 진인각(陳寅恪)은 《천사도여빈해지역지관계(天師道與濱海地域之關係)》³¹⁾에서 도씨(陶氏) 가문이 천사도(天師道)를 신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도연명의 증조부 도간(陶侃)은 파양(鄱陽) 사람으로 천사도 발원지인 빈해 지역에 속했고, 도씨 가문의 "之", "淵" 등의 이름이 천사도 신도들의 작명 전통에 부합하기 때문에 도연명 본인이 도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순수한 도교 신자들과는 달리, 도연명의 지향점은 신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새장 속에 갇혀 있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오다"³²⁾에서 드러나는 동경처럼, 도교가 주장하는 자연의 이념과 일치한다.

도교 신선 체계는 시 창작을 위한 풍부한 상상 무대를 마련해주었으며, 이러한 신선 이미지는 시에 신비로운 색채를 더했을 뿐만 아니라, 시인의 이상 세계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었다. 더 중요한 점은 도교의 은일(隱逸) 전통이 도연명의 인생 선택과 고도로 일치한다는 것이다. 도연명은 조정에 발을 들이려 하지 않았고, 전원에서의 농경

29) 《蓮社高賢傳》,作者不詳,中华书局 1991 年版,第 6 页.

30) 陶渊明著,陶澍著,龚斌点校:《陶渊明全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15 年版,第 28 页.

31) 陈寅恪:《金明馆丛稿初编》,北京: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2001 年,第 20 页.

32) 陶渊明著,陶澍著,龚斌点校:《陶渊明全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15 年版,第 27 页.- 15

에 더 큰 애착을 보였다. 갈홍(葛洪)의 《신선전(神仙傳)》에 묘사된 은사(隱士)의 형상 또한 도연명이 묘사한 "도화원(桃花源)"과 내재적인 정신적 연관성을 지니는데, 이러한 은일 사상은 난세 속 생존 지혜이자 현실에 대한 불만과 저항의 표현이었다.

동진 시기에는 정권 교체가 빈번하고 사회가 동요하며 불안정했으며,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백성들의 삶은 고통스러웠고 생명과 재산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으므로,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대해 자주 막연함과 공포를 느꼈다. 이러한 사회 배경 속에서 신화 전설, 신선 귀신 등 초자연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정신적 의지처가 되었고, 백성들은 이러한 내용에 깊은 흥미를 보였다. 도교와 불교가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는데, 도교는 장생불로(長生不老), 우화등선(羽化登仙)을 추구하며 그 신선 체계와 수련 방술은 기환적인 색채로 가득했고, 불교의 인과 윤회, 열반 경지 등의 사상 또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신적 의지처를 제공하였다.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신비한 힘에 대한 신앙과 추구가 유행했으며, 도연명은 이러한 사상 환경 속에서 생활하며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았으며, 이러한 문화적 분위기는 도연명 시가 "애기(愛奇)" 특색 형성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위진(魏晉) 시기, 민간 상업 활동이 빈번해지면서 향료, 진귀한 새와 기이한 짐승, 정교하고 아름다운 기물 등 대량의 외래 물품이 중원으로 끊임없이 유입되었고, 화제(火齊), 절옥도(切玉刀), 대미양(大尾羊) 등 많은 멀리 떨어진 지방의 이색적인 물품들이 중원 지역으로 들어왔다. 박물(博物) 개념의 영향 아래, 위진 시대 사대부들은 박식하고 다양한 지식을 추구하며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위진 시기 중원 지역에는 초주(譙周)의 《파촉이물지(巴蜀異物志)》, 주응(朱應)의 《부남이물지(扶南異物志)》, 만진(萬震)의 《남주이물지(南州異物志)》 및 익명 저자의 《이물지(異物志)》 등 외래 물품을 기록한 다양한 "이물지(異物志)"가 대량으로 출현하였는데, 이는 중원 - 16 사대부들이 외래 문화를 탐색하고 보존하며 수용하였음을 반영한다.³³⁾ 도연명은 스스로 "천년 전의 일을 알게 되는 것은 오직 옛 사람들의 책 덕분이다."(*《증양장사(贈羊長史)》*)³⁴⁾라고 말했으니, 그가 당시의 새로운 사물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33) 丁宏武, 刘东方:《魏晋士人生活与文学作品的新养分》,《西北民族大学学报》2025 年第 3 期,第 133 页.

34) 陶渊明著, 陶澍著, 龚斌点校:《陶渊明全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15 年版,第 47 页.

있었으며, 그 결과 창작에서 "애기(愛奇)"의 특색이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결어

소동파(蘇東坡)는 "도연명의 《독산해경(讀山海經)》 13수 중 7수는 모두 신선에 대한 이야기이다."³⁵⁾라고 보았다. 이는 어느 정도 도연명 시의 "애기(愛奇)" 특색을 드러내지만, 그 지향점은 신선 유람이나 종교 신화의 구축에 있지 않고, 세계에 대한 다원적 이해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존 세계의 불합리성에 대한 더 많은 해체(deconstruction)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도연명 시문의 애기(愛奇) 특색은 유가(儒家) 시교(詩教)의 심미적 새 패러다임을 돌파한다. 유가 관념의 영향을 받은 문학 작품들은 대개 초현실적인 사물을 언급하는 것을 최대한 피했지만, 도연명은 오히려 그 반대로 행하여 유가(儒家)가 초현실적 소재에 대해 금기시하던 것을 돌파하였다.

이러한 돌파는 단순히 소재 확장에 그치지 않고, 상고 신화(上古神話)를 생명 의식을 담는 시적 매개체로 전환한 것이다. 그 안에는 불교와 도가(道家) 관념이 포함되어 있지만, 항상 유동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더욱 진실하고 냉정하며 이성적인 사고, 심지어는 해체(deconstruction)의 일종을 보여준다.

도연명 시문에 나타난 애기(愛奇) 특색은 재구조화된 의상 체계(意象體系)의 시학적 혁신을 보여준다. 《형영신(形影神)》 연작시는 추상적인 개념을 인격화된 실체로 전환하고, '삼아(三我)'의 대화를 통해 입체적인 변론 장면을 구축한다. 이러한 구상 방식은 한위(漢魏) 시가(詩歌)의 기존 평면 서사 전통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철리시(哲理詩)의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였다. 《귀원전거(歸園田居)》 제3수에서 "새벽에 일어나 거친 밭을 일구고, 달을 띠고 호미 메고 돌아온다"(晨興理荒穢, 帶月荷鋤歸)고 묘사된 농경 의상(意象)은 불교의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를 생생한 전원 풍경으로 전환하여, 종교 이념의 심미적 승화를 이루었다.

도연명의 "애기(愛奇)" 의상(意象) 창작은 선명한 현대성 속성을 드러낸다. 《도화원기(桃花源記)》 속 유토피아적 환상은 단순히 현실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인류 정신의 안식처를 시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이러한 초월적인 정신적 추구를 지니며, 현대 실

35) 陶淵明著, 陶澍著, 龚斌点校:《陶淵明全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15 年版,第 121 页.- 17

존주의의 생존 의미에 대한 사유와 시공을 초월한 대화를 형성한다. 또한, 《잡시(雜詩)》 제4수의 "장부의 뜻은 사해에 있고, 나는 늙는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한다."³⁶⁾라는 호방한 선언은 개체 생명 가치의 실현을 우주의 거대한 변화 발전과 연결하여, 시인의 시대를 초월하는 정신적 경지를 반영한다.

도연명의 《독산해경(讀山海經)》 연작시는 문인이 신화를 활용하는 선례를 개척했으며, 그의 "주나라 왕의 전기를 널리 보고, 산해경 그림을 흘려본다(泛覽周王傳, 流觀山海圖)."는 창작 방식은 한대 이래 시부(詩賦)가 신화를 서술하는 전통을 깨뜨렸다. 신화 서사를 생명 체험으로 전환하는 이러한 창작 형식은 당대(唐代) 이백(李白)의 《고풍(古風)》과 이하(李賀)의 《이빙공후인(李憑箏篋引)》에서 계승 및 발전되었다.

36) 陶淵明著, 陶澍著, 龔斌點校:《陶淵明全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15 年版,第 103 頁